

# 목포 선창, 청년 창업 중심지로 개항기 영화 되찾는다

### 도시재생 공모 선정...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착공 내년 5월 완공 교육지원센터·청년창업상가 들어서...원도심 청년인구 유입 기대

근대 개항기에 변화했던 목포 선창이 청년 창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보광동 1가 상업지역 일원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착공식을 열고 내년 5월 개관 목표로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1897년 목포항 개항을 기념해 이름 지어진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 개항을 하며 상가와 여관 등이 들어서며 한때 번창했다.

목포시는 공동화가 심화하고 있는 원도심에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개선하는 등 재생사업을 벌여왔다.

이곳에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점

차 들어서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 사업을 마무리한 뒤 이곳에 청년에게 일자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지역의 오래된 구역을 정비하고 청년 창업을 키우 원도심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비 50%·시비 50%의 비중으로 11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건물은 지상 4층 1421㎡ 규모 교육지원센터와 지상 1층 252㎡의 청년창업상가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청년창업상가에는 7곳의 창업 공간이 갖춰진다.

한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1897 개항

문화거리의 지난해 창업 건수가 96건에 달하며 사업 추진 기간(2018~2022년) 평균 창업이 78건에 달했다. 이는 사업 추진 전 5년간(2013~2017년) 평균 창업 건수 55건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점포의 1년 미만 생존율은 17.2%에서 14.9%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 이후 1897 개항문화거리에서 창업자 유형은 외지인 23%, 목포시민 77%로 조사됐다.

1897 개항문화거리의 지난해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점(41.7%·345곳)과 소매업(39.7%·329곳)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생활서비스(9.1%·75곳), 숙박(7.6%·63곳) 순이었다. 지난 2018년까지는 일반음식점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이후에는 통신판매업 수요가 1위를 기록해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조성은 침체한 원도심에 청년들을 유입시킬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목포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시장 박홍률·왼쪽 네번째)가 지난 20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착공식을 열고 착공을 기념하는 삽을 뜨고 있다. <목포시 제공>

#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 선도 과수산업 발굴 나섰다

### H&B아시아·H&B팜과 협약 과수 실증단지 조성 등 협력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H&B아시아·H&B팜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H&B아시아·H&B팜 김희정 대표이사, 박주현 전무가 참석해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으로 신기술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과수산업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 대표 과수 발굴과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H&B아시아는 유통전문법인으로 직영농장인 H&B팜과 H&B 남미지사 등을 통해 전세계의 신선과일 유통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연비



명현관 해남군수와 H&B아시아·H&B팜 김희정 대표이사, 박주현 전무 등이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사과의 아시아 독점권을 가지고, 충남 등지에서 농가 계약재배와 공급망을 구축해 과수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H&B팜 해남지사 설립 등 해남프로젝트 투자계획과 함께 우수 아열대 신품종 도입, 재배 지원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해남군의 과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적극행정 우수 협업팀·공무원 선정

### 대파버거 숨은 조력자 등 수상

진도군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협업팀과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우수협업팀으로 농수산유통사업단 온라인판매 지원팀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연일 화제를 불러 모았던 '진도대파버거'를 흥행시킨 주역으로 진도대파 브랜드화 성공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협업팀 전원에 대해 국외연수 지원을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1건씩을 선발했다.

최우수로 선발된 총무과 과주석(전산7급) 주무관과 강기람(방송통신7급) 주무관이 공동 개발한 진도군 전용 공공앱 개발과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은 주민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우수로 선발된 인구정책실 오귀석(전문경력관) 팀장은 진도 대파버거를 탄생시킨 숨은 조력자로 평가받고 먹거리 소비 흐름을 파악하는 선제 대응으로 전국에 진도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개 부문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별휴가와 포상금, 근무성적평정 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 직원과 우수 팀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 발대식이 열린 지난 18일 지역 청년들이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 활동 시작

청년이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이 지난 18일 활동을 시작했다.

무안군은 이날 삼함읍 낙양중앙공원 소무대 일대에서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은 9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120명의 청년이 동참한다.

무안군청년플랫폼이 주관하는 이 단체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팝페라 가수 '필그림'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청년 대표 양은진, 고세형씨는 '무안을 사랑하는 청년 100인'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자기소개와 '무안 애정도' 문제 풀이 등이 이어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지역사랑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활동은 무안의 장래를 밝게 비추줄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시 관광 캐릭터·이모티콘 무료 배포

### 16종...2만5000명에 선착순

목포시가 22일 관광브랜드 캐릭터인 '목포랑' <사진>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발한 관광브랜드(BI) 캐릭터 목포랑 디자인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모티콘 배포는 23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목포시청'을 입력해 친구를 추가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간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응원해 준 시민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해 즐거움을 얻고, 목포시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관계자가 읍면에서 수집된 폐농약류를 운반차량에 싣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폐농약 454kg 무상 처리

### 무상 처리제 시행 농촌환경 개선

신안군이 폐농약 무상 처리로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폐농약류 무상 처리제도로 시행으로 수집된 폐농약류 454kg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농촌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23년 3월 3일부터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수집된 폐농약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이 사업은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이 생물의 건강, 생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된다. 배출 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된다.

신안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로 지난 2018년과 2022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또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농부의 품격'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esse@kwangju.co.kr

# 완도 고금면 유자 수확 한창 12월초까지 2700t 생산

완도군 고금면에서 유자 수확이 한창이다.<사진>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면의 유자 수확은 1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올해 수확량은 2700t으로 예상된다.

고금면은 유자 주산지로서 유자 재배 면적은 205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금 유자 가격은 10kg당 일반 유자는 7만원, 무농약 유자는 9만원, 유기농 유자는 1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완도 유자는 풍부한 일조량,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 유자보다 과피가 두껍고, 새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일품이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이상 들어 있



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껍질에 들어 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은 혈액 순환 촉진, 뇌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예방 등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

움을 준다.

유자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껍질이 포함된 유자청이나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mg@